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실행 방안 : 한국어 교육과 공공 언어 교육의 접점을 바탕으로



김 규 훈 (국립안동대)
(rbgns81@naver.com)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교육과 공공 언어 교육의 접점을 파악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공공 언어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국어 공공 언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한국어 공공 언어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을 범주화하였다. 기존 한국어 어휘 교육의 울타리를 파악하고, 특히 어휘 사용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은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학습 활동을 구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실행을 위한 학습자 수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급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원 서식 관련 공공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학습 활동을 구안하였다.

주제어: 공공 언어, 한국어 교육, 공공 어휘, 어휘 사용,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 공공 어휘 학습 활동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공공 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접점을 바탕으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공공 어휘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고 실제 학습 활동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실제적 삶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을 구체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공 언어는 공공의 장에서 해당 업무자가 공공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해 내는 일체의 구어와 문어를 의미한다(민현식 외 2010, 3). 공공 언어는 모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모국어 학습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공공 언어의 이해와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현식(2023, 30-31)에서는 국어교육에서의 공공 언어 교육은 공공 언어 특성, 공공 언어 규범, 공공 언어(어휘, 문장) 순화, 공공 언어 장르 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때 지금, 여기의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바, 공공 언어 교육은 더 이상 모국어 학습자를 위한 영역이 아니다. 외국인 유학생 또한 대한민국의 실존적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바, 그들이 공문서나 공공 구어를 소통하기 위한 교육적 방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소영(2022, 23)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내 공공 언어 이해도를 분석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안정민 외(2023, 483)에서는 외국인이 체류나 비자 발급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신청 누리집인 사회통합정보망에 쓰인 공공 언어를 분석하여 정확성이나 소통성 부문에 문제가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이렇듯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공 언어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언어의 실질적 교육적 방안을 강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언어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에서 '어휘 교육(vocabulary education)'을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한국어 어휘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서 근간을 이룬다는 사실과 공공 언어에서도 어휘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어휘 교육은 모든 언어 교육의 근간이라는 사실은 매우 자명하다(김광해 1997). 한국어 교육에서도 한국어 어휘 교육은 문법 영역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 기초 영역에 해당한다. 한국어 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듣고 말하며 읽고 쓰는 영역에서 어휘 교육은 이들 도구 영역의 내용론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공공 언어에서 어휘는 공공 언어의 실태 조사에서

가장 중핵적인 영역이자, 공공 언어의 소통성과 관련하여 중심을 이루고 있는 언어 단위이기도 하다. 조태린(2010, 38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렵고, 부정확하며, 저속하고, 차별적인’ 어휘가 공공 언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논지도 이와 동궐을 형성한다.

이를 전제로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어휘 교육의 실행(implementation) 방안을 고민해 보기로 한다. 곧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공공 어휘 교육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가늠해 볼 것이다. 이때 이 연구는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어휘를 의사소통의 매개로 간주하는 ‘어휘 사용 교육’의 관점에서(구본관 외 2014), 한국어 교육의 공공 어휘 교육을 범주화해 볼 것이다. 곧 ‘정확한 어휘 사용 연구’, ‘적절한 어휘 사용 연구’, ‘타당한 어휘 사용 연구’라는 어휘 교육 내용 유형화의 틀을 바탕으로 하되(신명선 2011, 87),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공공 어휘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히 사용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확한 한국어 공공 어휘 사용’, ‘적절한 한국어 공공 어휘 사용’의 범주에서 교육 실행의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 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접점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언어 교육의 방향을 고민한 시의적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어 어휘 교육으로 초점화해 볼 것이다. 그런 다음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공공 어휘의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한국어 어휘 교육의 논의 경향을 살피고 어휘 사용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내용 범주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학습 활동을 구안하고 이를 환원적으로 해석하여 추후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II. 한국어 교육과 공공 언어 교육의 접점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어휘의 교육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교육과 공공 언어 교육의 접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한국어 어휘 교육이 한국어 교육의 하위 내용 가운데 하나이고, 공공 어휘 교육은 공공 언어 교육의 하위 영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공공 언어 교육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 공공 언어 교육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로 김규훈(2024)를 들 수 있다. 김규훈(2024)에서는 공공 언어 교육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언어 교육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김규훈(2024, 123-134)에서 논의된 ‘공공 한국어 교육’¹⁾의 목표와 대상 학습자, 교육 내용 범주를 참고하되, 이 연구의 맥락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 공공 언어 교육의 접점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언어 교육에 대한 목표와 대상 학습자를 고민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 언어 및 교육에 대한 논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현식 외(2009)는 일반 국민이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 기관을 조사하고, 공공기관 서식의 공공 언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어려운 공공 언어를 쉽게 풀어 써야 한다는 필요성을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어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공공 언어 이해와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조태린(2010), 박창원(2015) 등은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행정 기관의 보도 자료 등의 공공 언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정희창(2023), 한은주(2023), 김지오(2023)은 공공 언어의 실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고등교육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아, 공공 언어를 교육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공 언어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한국어 교육을 직접 지칭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공공 언어를 어려워한다는 분석적 논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소영(2022)는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본 대학 내 공공 언어의 정확성, 소통성 영역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정민·한혜민(2023)은 이주민의 시각에서 공공 언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어휘의 정확성이나 소통성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연구를 바탕에 둘 때, 한국어 교육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 언어 교육은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내 공공 언어의 주체가 외국인 유학생으로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공공 한국어에 대한 문식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언어 교육의 체계를 형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²⁾

1) ‘공공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 김규훈(2024, 117)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언어 교육을 지칭하되, 외국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적합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안에서 공공 어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 공공 말하기·듣기 교육, 한국어 공문서 읽기 및 쓰기 교육 등의 용어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록 이 논의가 ‘실행 연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한국어 공공 언어 교육의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언어의 재개념화, 공공 언어 교육의 범주 등을 설정하는 작업도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언어 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바탕은 교육 대상 선정과 교육 목표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 한국어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중요하므로 공공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곧 ‘공공 언어 사용자로서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박재희(2020, 180)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 언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언어이고,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한국어 교육은 특수 목적(특히 학문 목적)의 학습자와 일반 목적의 학습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김규훈 2024, 125). 공공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에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 정주형 취업자, 결혼 이민자 등의 ‘정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공공 한국어 교육은 필수적이다. 공공 한국어 교육의 대상과 교육 목표는 외국인의 비자, 공공 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언어 교육은 공공 언어 문식성 함양에 중점이 놓인다. 정주하는 외국인 대상으로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공문서(공공 구어)를 원활히 소통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공공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공공 한국어 문식성 함양을 기본으로 하여 정주하는 삶의 공적 상황에서의 원활한 한국어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언어 교육의 대상 학습자와 그에 따른 교육 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은 아래와 같은 초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대상 학습자 초점: 외국인 유학생
- 교육 목표 초점: 한국어 공공 어휘의 이해와 사용 능력 함양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을 초점화된 대상 학습자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은 공공 어휘가 한국어 어휘 교육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어휘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목적, 특히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이다. 동시에 이미 체계화된 한국어 어휘 교육의 틀 안에서 공공 어휘를 대상화하는 일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이 공공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실증적, 통계적 연구도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 어휘 교육의 목표와 동일하면서도 특히 한국어 공공 어휘를 이해하고 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초점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에서 논의한 공공 한국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언어 교육 내용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한국어 교육이 지닌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공공 언어와 관련된 텍스트 유형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 내용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언어 교육을 위한 텍스트 유형은 공공 언어의 협의 개념으로서 공적 상황으로 제한하여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대상 학습자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공적 상황에서 공공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원활히 소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소통 양상을 공공 한국어 교육의 대상 텍스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³⁾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적 의사소통 상황과 한국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통 공공 언어 범주⁴⁾를 고려하여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교통 및 여행’과 후자에 해당하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교통 정보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도로 교통 표지판, 기차 노선도, 환승 방법 안내’ 등을 텍스트 종류로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텍스트를 활용하여 공적 상황에 대한 문식성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공 한국어 텍스트를 질료로 삼은 공공 한국어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 내용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어교육에서의 공공 언어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의 영역과 영역별 교수·학습의 주안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재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영역을 ‘한국어 지식(어휘·문법)’, ‘한국어 사용(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한국어 문화(언어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에 공공 언어

3) 의사소통 교수법이 한국어 교육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텍스트가 의사소통 상황에 따른 주제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은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언어 텍스트를 선정할 때도 일차적으로는 공공 언어의 의사소통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4) 민현식 외(2010, 28-38)에서는 공공기관별 공통 공공 언어 범주를 ‘법률문, 보도 자료, 공고문, 기사문, 식사문, 안내문’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추후 한국어 공공 어휘 목록을 선정할 때는 이들 범주를 우선적으로 대상화하여 어휘 빈도를 고려한 한국어 등급별 어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의 텍스트, 즉 공공 의사소통 상황과 구체적인 텍스트 유형을 고려하여, 공공 한국어 교육의 내용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공공 언어 교육의 기능적 문식성을 중시하여 공공 언어의 문화와 그것이 표상된 어휘 및 문법 등을 교수·학습하는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한국어 교육의 영역별 공공 언어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⁵⁾

<표 1> 한국어 교육의 영역별 공공 언어 교육 내용

영역	공공 언어 교육 내용	내용 요소의 예
한국어 지식	공공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탐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공공 어휘 목록과 사용 ▪ 공공 의사소통에서의 문장과 담화
한국어 사용	공공 의사소통 상황에서 한국어를 말하고 들으며 읽고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구어 듣고 말하기 ▪ 공문서 읽고 쓰기
한국어 문화	한국의 공적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 규범 및 예절을 준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사회생활과 언어문화 ▪ 한국 사회의 언어 규범과 예절

위 <표 1>은 한국어 교육의 영역별 공공 언어 교육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어 지식 영역에서는 공공 의사소통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탐구하는 것을 주요 공공 언어 교육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국어 지식이 어휘와 문법을 가리키는바, 공공 언어와 관련된 한국어 어휘, 한국어 문법 가운데에는 특히 공공 언어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문장이나 담화 구조 등이 주요 교육 내용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한국어 사용 영역은 공공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글에 대한 기능적 문식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한국어를 듣고 말하며 읽고 쓰는 의사소통 기능이 주요 교육 내용이며, 공문서와 공공 구어가 대표적인 텍스트 유형으로 설정된다. 한국어 문화 영역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공적 언어문화와 그에 따른 한국어 규범과 예절을 준수하는 것을 중심 교육 내용으로 설정한다. 한국 사회의 유교 문화적 특징을

5) 참고로 <표 1>은 김규훈(2024, 137)에 제시된 ‘공공 한국어 소통 교육’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초점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김규훈(2024, 137)에서는 공공 한국어 교육 중에 ‘(의사)소통’ 범주가 존재한다고 보며, 그 안에서 한국어 사용, 지식, 문화별 교육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공공 어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범주보다 상위의 일반적인 공공 언어 교육의 내용을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비롯하여 지금, 여기 한국 사회의 독특한 언어문화를 탐구하되, 특히 공공 의사소통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호칭어, 지칭어, 높임말 등 한국어 규범과 예절을 세부적인 교육 내용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언어 교육 내용 가운데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은,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어 지식’ 범주에서 특히 ‘어휘 목록, 어휘 사용’ 등의 교육 내용 요소로 실현될 수 있다. 곧 한국어 어휘 교육의 기존 내용 가운데 공공 어휘에 대한 목록을 마련하고, 이들 공공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를 사용하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어휘를 사용하는 교육 내용은 위 <표 1>의 한국어 사용 범주와 통합적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문서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근간에 작동하는 공공 어휘, 공공 구어를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공 어휘 등이 한국어 사용과 통합될 것이다.

Ⅲ.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공공 어휘 범주 설정

이 장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공공 어휘의 범주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 어휘 교육에 대한 시의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공공 어휘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공공 어휘는 사용되는 어휘(vocabulary in use)라는 점에서 어휘 사용 교육의 관점에서 공공 어휘의 교육적 범주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 연구는 크게 ‘목록 중심의 어휘 교육’ 논의, ‘어휘 사용 및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목록 중심의 어휘 교육 논의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기본적인 언어 단위가 어휘이기 때문이다(김한근 2020; 이유경 2021; 남신혜 외 2020 등). 어휘 사용 및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 어휘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윤창숙 2020; 송아라 2023; 신정아 2020 등). 이들은 다수의 어휘 목록에 대한 논의를 교육적 맥락에서 어휘 사용의 전략이나 방법과 관련이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어휘 교육은 이들 한국어 어휘 교육의 연구 경향 가운데 ‘목록 중심의 어휘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공공 어휘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서 아직 발현되지 못한 상태이며,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중심을 이루는 목록 중심 어휘

교육 가운데 공공 어휘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록 중심의 한국어 어휘 교육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어휘 목록을 선정하는 논의와 실제 한국어 사용 상황이나 의미를 고려한 한국어 어휘 목록 선정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전자와 관련하여, 김한근(2020)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표와 토론과 같은 생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 목적 교육용 어휘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후자와 관련하여, 박건숙(2021)은 한국어 학습자가 접속부사의 기능과 의미를 실제 글쓰기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사전의 접속부사 어휘 정보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련의 논의들은 어휘나 어휘 관련 문법 요소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때 한국어 사용 상황이나 의미를 고려하여 한국어 어휘 목록을 선정해야 한다는 논의 가운데에서는 한국어 목적에 따른 어휘 목록 선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중심 주제인 공공 어휘와 관련해서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어휘 목록 선정이 기본이 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화택화 외 2021; 수시아 2023). 어휘 목록을 선정하되, 어휘를 암기하여 퍼즐 맞추듯 문장을 조합하는 것이 아닌, 실제 상황을 제시하여 맥락과 함께 어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어휘 교육은 특수 목적 한국어에 편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학문적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학습자가 속한 집단 내의 공공 어휘가 존재하고, 직장 내에서의 구성원들 간 소통을 위한 공공 어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언어를 다룬 연구는 대학교와 사회 통합정보망 내의 공공 언어 실태를 공공 어휘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강소영 2022; 안정민 외 2023). 이들은 공공 언어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외국인들이 이해 가능한 대체 어휘를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공공 언어의 분석 영역 가운데 소통성에 주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해 가능한 한국어 공공 어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교육적 국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어 교육에서 공공 어휘 교육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실상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어휘 교육은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의 다양한 범주 가운데 목록 중심의 어휘 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특수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상황별 어휘 사용 교육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공공 어휘에 대한 한국어 교육 논의는 외국인 유학생의 소통성 문제가 있음을 분석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이를 극복하여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어휘 사용 교육의 관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목록 중심의 어휘 교육이 전통적으로 어휘 목록을 제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상황이나 목적에 따른 어휘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 사용 교육, 즉 언어 사용 중심의 어휘 교육은 이러한 시의적 목록 중심 어휘 교육을 더 확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언어 사용 상황이나 의사소통 목적을 고려한 어휘 사용을 어휘 교육에서 중시한다. 이러한 지향점은 의사소통 교수법이 중심을 이루는 한국어 교육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어휘나 문법 영역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한국어를 듣고 말하며 읽고 쓰는 가운데 평가하는 한국어 능력 평가의 방향과도 동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어휘 사용 교육의 관점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적절하며’, ‘타당한’ 어휘 사용을 교육 내용화의 틀로 삼고 있다(신명선 2011, 86-88). 구체적으로 정확한 어휘 사용 교육은 단어 개념의 정교성, 단어의 체계 이해 등 개별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적절한 어휘 사용 교육은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는지와 관련이 깊으며, 어휘 의미의 가치, 사용역에 따른 어휘 등의 내용 요소가 제시된다.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은 어휘 유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국어 순화 발전 방향 등과 같이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어휘를 사용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탐구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신명선 2011, 90). 이와 같은 세 범주의 어휘 사용 교육은 정확한 어휘 사용을 토대로 적절한 어휘 사용이 이루어지며, 이들은 바탕으로 어휘 사용의 타당성을 탐구할 수 있는 상호 포함 관계를 지닌다.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을 이와 같은 어휘 사용 교육의 관점으로 범주화하기 위하여, 인접 학문인 국어교육에서 논의된 공공 어휘의 범주를 참조하는 것은 유용하다. 그것은 국어교육의 공공 어휘 범주에서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어휘 사용이 무엇인지 초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의 공공 어휘 범주에 관련된 논의 가운데 김규훈(2023)에서는 어휘 사용의 범주를 적용하여 공공 어휘 교육의 틀을 제시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다음 <표 2>와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표 2〉 공공 언어 교육에서 어휘 사용 교육의 범주(김규훈 2023, 80)

범주	공공 언어 관련 내용	공공 어휘 사용 교육의 범주
정확한 어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언어 ▪ 공공 언어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 이해 ▪ 공공 어휘 사용의 언어 의식 고양
적절한 어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해 한자어 및 외국어 ▪ 호칭어와 지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상황 맥락을 고려한 어휘 사용 ▪ 공공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적절성 탐구
타당한 어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차별 표현 ▪ 공정 언어의 이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어휘에 반영된 어휘의 사회문화성 탐구 ▪ 공공 어휘가 배태하는 사회의 이념성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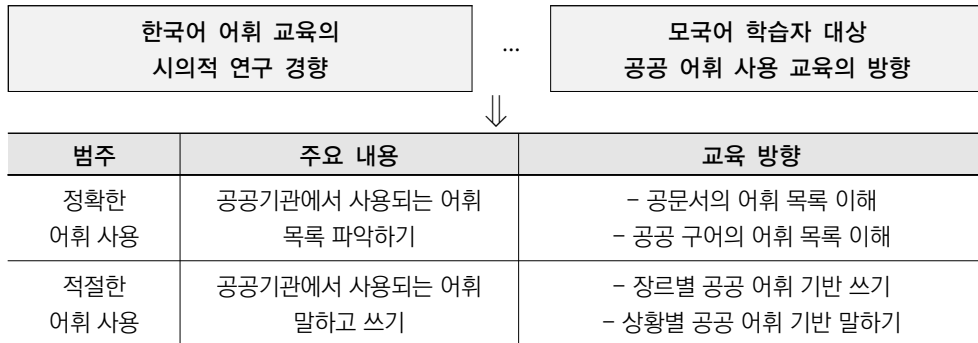
위 〈표 2〉는 민현식(2021)의 공공 언어 교육 방향과 신명선(2011)의 어휘 사용 교육 관점을 접목하여, 공공 언어 교육에서 어휘 사용 교육의 범주를 제시한 것이다. 이들 범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확한 어휘 사용에서는 공공 텍스트의 어휘 이해, 공공 어휘를 사용해야겠다는 언어 의식 고양에 집중한다. 적절한 어휘 사용에서는 공공 상황 맥락을 고려한 어휘 사용이 중심을 이루고, 타당한 어휘 사용에서는 공공 어휘 사용에 대한 사회문화성과 이념성 등 왜 그러한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메타적으로 성찰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위 〈표 2〉의 공공 어휘 사용 교육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것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에 두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듣고 말하며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르는 데 한국어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표 2〉에서 제시된 ‘어휘 의식 고양’이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타당한 어휘 사용’의 범주에 관한 내용은 일반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하기 어렵다.⁶⁾

동시에 앞서 논의한 한국어 어휘 교육의 경향을 보건대, 목록 중심의 어휘 교육이 지닌 한국어 어휘 교육의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해당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실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어

6) 물론 고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모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에서 말하는 언어 의식, 어휘 사용의 타당성 탐구 등과는 결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문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가 일반 목적의 외국인 학습자로 거듭나는 경우, 특히 정주(定住)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언어 의식이나 어휘 사용의 타당성 탐구 등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추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의적, 메타적 어휘 교육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교육에서의 공공 어휘 교육은 위 <표 2>에서 정확한 어휘 사용과 적절한 어휘 사용 범주를 두 축으로 삼으며, 정확한 어휘 사용에서는 공공 어휘의 목록을 익히는 것을 중심으로, 적절한 어휘 사용에서는 해당 공공 어휘 목록을 실제 공공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내용 범주

위 [그림 1]은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내용 범주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논의하였던 한국어 어휘 교육의 시의적 연구 경향과 모국어 학습자 대상 공공 어휘 사용 교육의 방향을 연계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을 범주화하였다.

먼저 정확한 어휘 사용의 범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어휘 목록을 파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삼는다.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중시하는 목록 중심의 어휘 교육을 존중하되, 현재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공공기관에 쓰이는 어휘 목록을 확보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에 쓰이는 어휘는 공공 언어 텍스트의 유형에 기인하는데, ‘공문서’와 ‘공공 구어’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문서에 등장하는 어휘 목록과 공공 구어에서 사용되는 어휘 목록을 이해하는 교육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들 각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및 공공 구어의 종류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공공 어휘를 파악하고 정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적절한 어휘 사용의 범주에서는 위 정확한 어휘 사용에서 이해한 공공 어휘 목록을 직접 말하고 쓰는 내용을 중심에 둔다. 적절한 어휘 사용 교육은 한국어 사용과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한데, 그것은 어휘 사용이 결국 표현 능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공문서를 쓰거나 공공 구어를 말하는

가운데 공공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 [그림 1]에서 명시하였듯이, 공문서의 경우 ‘장르(genre)’에 따라 공공 어휘를 써 보는 활동을, 공공 구어의 경우 ‘상황(situation)’별로 공공 어휘를 말해 보는 활동을 구안할 수 있다.⁷⁾

IV.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학습 활동 구안

지금까지 제시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내용 범주에서 더 세부적인 교수-학습 내용 요소를 하나씩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방향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양상을 학습 활동으로써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교육 연구가 항상 실천적 수행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며, 학습 활동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공공 어휘 이해와 사용이 어떤 교육적 수준과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3장에서 논의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각 내용 범주인 정확한 어휘 사용과 적절한 어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학습 활동 하나를 구안해 보고자 한다. 정확한 어휘 사용과 적절한 어휘 사용은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내용 범주인데, 이들 각 범주가 독립된 활동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확한 어휘 사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어휘 사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며, 각 내용 범주가 적용되는 학습 활동은 주제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실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⁸⁾ 이때 이러한 주제 중심의 한국어 교육의 학습 활동은 반드시 외국인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7) 이와 관련하여 민현식 외(2010, 28-38)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공공 언어 범주를 ‘법률문, 보도 자료, 공고문, 기사문, 식사문, 안내문’으로 정리한 바 있다. 기본 수준 교육에서는 이러한 공통 공공 언어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목록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 언어 텍스트별 공공 어휘의 목록화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거대 언어 모델(LLM)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한국어 공공 어휘의 목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8) 더욱이 어휘 사용의 관점에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 어휘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사용하는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공문서를 대상 텍스트로 제시한 다음, 공문서에 사용된 어휘의 목록을 이해하는 정확한 어휘 사용 활동을 먼저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에 사용된 어휘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작성해 보는 활동을 다음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적 활동이 하나의 학습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학습 활동이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한다.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은 ‘공공기관에서의 의사소통’과 같은 주제가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사소통 상황에 해당하는 등급별 교육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체부 2020, 9-10)에 제시된 등급별 총괄 목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연구자 밑줄).⁹⁾

- 1급: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주 접하는 소재나 짧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 2급: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적 상황에서의 간단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 3급: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 4급: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나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소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추상적 주제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 5급: 사회 전반에 대한 소재와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이거나 일부 전문적인 내용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 6급: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이 드러나는 소재의 글이나 학술적인 소재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총괄 목표에서 교육 대상 텍스트를 주목해 보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일상적 담화에서 사회적, 학술적 담화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급(1, 2급) 수준의 학습자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조금 친숙한 사회적인 담화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중급(3, 4) 수준의 교수-학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위 총괄 목표의 등급은 각 수준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등급이 상위 등급의 전제가 된다. 이는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을 적용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총괄 목표에서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하면, 2급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적 상황에서의 간단한 대화’가 공공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물론 ‘간단한

9)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총괄 목표에는 의사소통 수준과 의사소통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공공 어휘의 적용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의사소통 기능은 제외하고 인용하기로 한다.

대화'를 명시하여 정형화된 말하기와 쓰기가 중심을 이루는 2급 학습자에게 한국어 공공 어휘 가운데 빈도가 높은 단어를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이행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3급의 '자주 접하는 사회적 상황'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필요한 공공 업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며, 4급의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업무'는 비록 자신의 직장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과 같은 업무적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을 함의하고 있다. 결국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은 중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이되, 초급에서부터 해당 어휘를 노출하는 편이 교수학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학습 활동을 다음과 같은 대상 학습자, 학습 목표, 그리고 의사소통 상황을 바탕으로 구안하기로 한다.

- 대상 학습자: 4급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
- 교수-학습 목표: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신청할 수 있다.
- 의사소통 상황: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제시된 어휘 이해, 작성, 담당자와 대화

위와 같이 이 연구에서 예시로 구안할 학습 활동은 숙련된 중급인 4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접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이사를 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는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주목하였고, 이 신고서에 제시된 어휘를 이해하고 실제 신고서를 작성하며 담당자와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다. 구체적인 텍스트와 활동 문항을 다음 <표 3>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¹¹⁾

10)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총괄표(문체부 2020, 31)을 살펴보면, 2급 수준에서는 '듣기, 말하기'에 공통적으로 '친숙한 공공장소', '자신의 기본적인 의사 표현'을 명시하고 있고, '읽기'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공적인 글'을, '쓰기'에서는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을 활용한 문장 쓰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공공 언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초급 수준에서부터 적극 노출되어야 한다.

11) 아래 <표 3>의 텍스트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서'에서 병기된 언어(영문, 한자, 러시아어 등)를 삭제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병기된 언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민원 서식은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할지도 모른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정주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한국어 사용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한국어 공공 언어 교육을 위해 공공 어휘 및 표현을 익히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 3〉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학습 활동: 민원 서식의 어휘 이해와 사용

텍스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신설 2023. 12. 14.> 체류지 변경신고서			
	성명			
	성별	[]남 []여	국적	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			-
	변경된 대한민국 내 주소			
	거주 형태	[] 자 가 [] 전세·월세 [] 그 밖의 형태 ()		
	* 가족 구성원 전체가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할 경우 소유자나 임차인 본인 외의 동반 가족은 거주형태를 '그 밖의 형태' 로 표기			
	신고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의 경우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주거확인서(난민신청자 등) - 그 밖에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활동문항	1. 위 신고서에 쓰인 어휘의 일부입니다. 관계있는 설명과 연결하세요.			
	1) 자가 :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전세·월세 : 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3) 체류지 : 머무는 집이 자신의 것입니다. 4) 소유자 :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는 곳입니다. 5) 임차인 : 현재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6) 입주확인서 : 2년 단위의 계약 혹은 매달 집세를 납부하며 빌린 집을 말합니다.			
2. 아래는 위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괄호 안의 어휘를 채워서 짝과 함께 대화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 신청인: 안녕하세요,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 담당자: 네 물론이죠. 먼저 성명과 성별, 국적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세요. □ 신청인: 네 작성했어요. 변경된 대한민국 내 주소는 이사한 곳을 쓰면 되나요? □ 담당자: 네, 그리고 집의 (소유자)이면 (자가)를, (임차인)이면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면 되어요. □ 신청인: 네, 2년 단위 계약이면 (전세)가 맞죠? □ 담당자: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신고일은 오늘 날짜를 쓰고, 신고인에 본인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 주세요. 이사한 집에 살고 있다는 확인 서류가 있나요? □ 신청인: 네, (입주확인서)를 가져왔어요.				

위 <표 3>은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민원 서식에 쓰인 어휘를 이해하고 직접 사용해 보는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학습 활동을 구안해 본 것이다. 텍스트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사용할 법한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시하였고, 활동 문항은 이 신고서에 쓰인 어휘 목록을 이해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어휘를 대화 상황에서 사용해 보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는 중급 수준의 외국인 학습자가 처음 접할 수 있는 민원 서식으로서, 이사와 관련된 공공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어휘의 경우, 체류지 변경에 관련된 것, 즉 이사와 관련된 전문가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이러한 체류지 변경 신청서를 사용할 때 서식에 제시된 이들 전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중급 수준의 학습자일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러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활동 문항의 경우, 크게 1번 활동에서는 어휘 목록을 이해하는 것으로, 2번 활동에서는 어휘 사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1번 활동의 경우 ‘자가, 전세, 월세, 체류지, 소유자, 임차인, 입주확인서’ 등 체류지 변경신청서에 제시된 공공 어휘 목록의 뜻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¹²⁾ 1번 활동은 일반적인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어휘 이해 활동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특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전문어임을 고려하여 배합형 문항으로 어휘와 그 뜻을 연결하도록 유도하였다.

2번 활동의 경우 1번의 어휘 목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인데, 이는 앞서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표현 활동, 즉 쓰거나 말하기 활동과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번 활동은 외국인 학습자가 텍스트로 제시된 체류지 변경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이 되, 이를 담당자와 신청자의 대화 상황 속에서 어휘 사용을 통해 짝 학습으로써 수행하게 된다. 이때 1번에서 학습한 어휘를 대화 상황 속에서 적용한다는 점에서 완성형 문항으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가 향후 실제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사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비록 위 <표 3>의 학습 활동은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에 초점을 두어 어휘 교수·학습에만

12) 물론 이들 어휘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급 수준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체류지, 임차인’ 등의 어휘는 고급 수준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공문서가 중급 이상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는 점에서, 해당 어휘가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 사회 거주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급 수준에서도 적극 다룰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를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사용하는 질료로 그간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집중된 것이지만, 실제 교재를 구성할 때는 듣기·말하기, 읽기 및 쓰기 등의 한국어 사용과 관련된 확장된 활동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공 텍스트의 장르에 따른 어휘 목록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 구어의 소통 상황 속에서 함께 사용해 보는 활동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V. 연구의 요약과 전망

지금까지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실행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교육과 공공 언어 교육의 접점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 사회에서 공공 언어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 공공 언어 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공공 언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그런 다음 한국어 공공 언어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을 범주화하였다. 기존 한국어 어휘 교육의 울타리를 파악하고, 특히 어휘 사용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은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학습 활동을 구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실행을 위한 학습자 수준을 2급 이상 4급 이하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4급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원 서식 관련 공공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학습 활동을 제시해 보았다.

일련의 논의는 한국어 공공 언어 교육에서 기초적이지자 중핵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어휘 교육, 즉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가능성을 가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의사소통 교수법을 고려할 때, 어휘 사용 교육의 관점을 도입하여 공공 어휘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교육이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추후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세부 내용이 공문서 및 공공 구어와 같은 공공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들 체계에 따라 구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어 교육에서의 공공 언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출발 단계에 놓여 있다 보니,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이론적 정합성을 깊이 있게 따지지 못하고 그 실행 방안을 한 번 논의하는 데 그쳤다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추후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에 관한 내용 체계를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문서와 공공 구어라는 텍스트와 정확한 어휘 사용과 적절한

어휘 사용이라는 내용 범주의 교집합은 장르(genre)와 상황(situation)에 따라 매우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다. 국립국어원 등에서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공 언어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외국인에게 반드시 교육할 필요성이 큰 공공 텍스트를 선별하고 그 안에서 공공 어휘를 확립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한편 한국어 공공 어휘 교육의 내용에 대한 정련화는 곧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공공 언어를 사용하는 일과 통합되어 있음을 직시할 때, 한국어 공공 언어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 공공 구어 듣기·말하기 교육, 공문서 읽기와 쓰기 교육 등을 체계화하는 논의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22.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본 대학 내 공공 언어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44(9), 19-32.
- 구분관 외. 2014. 어휘 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광해. 1997. 어휘력과 어휘력의 평가. 선청어문 25, 1-29.
- 김규훈. 2023. 공공언어 교육으로서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의 방안: 공공 어휘의 타당성 탐구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48, 73-100.
- 김규훈. 2024. 공공 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접점: '공공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를 위하여. 배달말 74, 115-145.
- 김지오. 2023. 대학생 칼럼의 미숙한 표현 고찰: 공공 언어가 갖춰야 할 요건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89, 103-133.
- 김한근. 2020.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어휘의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 27-50.
- 남신혜 외. 2020. 예술 분야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용 어휘 선정: 미술계열 학습자 대상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 79-104.
- 문체부. 2020.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20-54호(2020. 11. 27)).
- 민현식 외. 2009.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_____. 외. 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_____. 2023. 공공언어 정책과 교육의 괴리 극복 방안. 동악어문학 89, 13-45.
- 박건숙. 2021.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접속부사 어휘 정보 활용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873-890.
- 박재희. 2020. 현행 공공언어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 코기토 91, 175-202.
- 박창원. 2015. 공공 언어의 공공성: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6, 139-178.
- 송아라. 2023.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의 어감 교육의 필요성. 외국학연구 63, 253-270.
- 수시아. 2023.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어휘 선정 및 교육 방안. 국어교육연구 81, 131-165.
- 신명선. 2011. 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0, 61-101.
- 신정아. 2020. 단편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스토리텔링(storytelling)과 리텔링(retelling)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257-288.

- 안정민 외. 2023. 이주민을 위한 공공언어 진단 연구: 사회통합망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4(5), 475-492.
- 윤창숙. 2020. 다중 지능 이론을 활용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 연구: 미각·촉각 어휘를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4(2), 291-317.
- 이유경. 2021.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 선정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어언어문화학 18(2), 247-278.
- 정희창. 2023. 공공언어 교육의 실제: 대학에서의 공공언어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89, 47-68.
- 조태린. 2010.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 27, 379-405.
- 한은주. 2023. 대학교육에서의 공공언어 인식과 함양 필요성에 따른 조명. 동악어문학 89, 69-101.
- 화택화 외. 202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비즈니스 어휘 선정 및 애플리케이션 기반 교육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4), 61-80.

● 투고일: 2024.07.17. ● 심사일: 2024.07.22. ● 게재확정일: 2024.08.07.

| Abstract |

**Implementation Ways for Korean Public
Vocabulary Education
: Based on the Intersection of Korean Education
and Public Language Education**

Kim Kyooho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lementation plan for public vocabulary education in Korean. To achieve this aim, the intersection of Korean education and public language education was first identified. Based on the necessity for foreign learners to communicate in public language within Korean society, the goals and content of Korean public language education were outlined. Subsequently, Korean public vocabulary education was categorized as a sub-area of Korean public language education. By understanding the scope of existing Korean vocabulary education, it was confirmed that accurate and appropriate vocabulary usage is essential,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vocabulary usage education. Based on this, learning activities for Korean public vocabulary education were designed. To this end, the learner levels for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public vocabulary education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grade-specific objectives of the Korean standard curriculum. Accordingly, learning activities were devised for intermediate-level international students to understand and use public vocabulary related to civil service forms.

〈Key words〉 Public Language, Korean Education, Public Vocabulary, Vocabulary Use, Korean Vocabulary Education, Korean Public Vocabulary Learning Activities